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내용문의** : 문화관광연구부 최윤규
부연구위원 (063-280-7132)
- **담당실장** 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7월 5일(목)부터

전북, 체육자원으로 남북교류 선도

전북연구원, 전북형 남북 체육교류 제안

- 남북 통일농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을 통한 전북형 체육교류 모델이 제안됐다.
- 제시된 모델은 국가대표 간 친선경기 성격이 강한 남북 체육교류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종목을 선점하는 방안이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5일 '남북평화의 시대, 체육과 전북의 대응'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이 강점을 가진 태권도를 통한 북한교류를 강조했다.
- 연구원은 4·27 판문점선언에서 체육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남북화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체육 분야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.
- 남북한은 지난달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고, 통일농구 개최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를 합의했다.

- 연구원은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명시했지만 남북교류를 단독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.
- 따라서 전북은 무주에 위치한 '태권도원'과 북한 '태권도전당'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 태권도 겨루기의 발상지인 전북 태권도와 절도와 강력함이 특징인 북한 태권도 모두 실전을 바탕으로 둔 공통점을 가진다.
-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북한태권도 시범단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북한태권도의 특징은 살상이 가능한 파괴력이다”며 “북한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전북에서 태권도 겨루기가 태동할 때, 현재의 이중격투기처럼 실전을 바탕으로 했다”고 밝혔다.
- 연구원은 지역에 연고를 둔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KCC이지스 구단의 활용도 제시했다. 전국 최고 수준인 두 구단과 북한 축구와 농구 대표팀의 친선경기를 제안했다.
- 또한 북한 유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실력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
- 연구원은 전북형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'전라북도 체육 남북협력 거버넌스'를 제시했다.
- 연구원은 전북형 모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협의기구인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붙임. 이슈브리핑 원고